

부부의 자기보고 결혼만족 및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조 영 주[†]

한경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보고 결혼만족과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에서의 성차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의 결혼만족 지각에서 지향성 편향, 지각의 유사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과 이들 지각의 편향과 정확성에서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126쌍의 부부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대응표본 t-검증, 상관분석 및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자기보고 결혼만족이 아내의 자기보고 결혼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남편은 자신의 결혼만족에 비하여 아내의 결혼만족을 낮게 지각하였고, 아내는 자신의 결혼만족에 비해서 남편의 결혼만족을 높게 지각하였다. 셋째,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대한 지각에서 지향성 편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보고 결혼만족과 이에 대한 배우자의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자신의 결혼만족을 투사하여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지각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지각에서 전체 지각의 정확성은 남녀 모두 유의하였다. 여섯째,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대한 직접 지각의 정확성은 아내가 남편의 결혼만족을 지각할 때는 유의하였으나, 남편이 아내의 결혼만족을 지각할 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였고, 연구의 의의, 상담 실제에 대한 함의,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주요어 : 결혼만족, 지향성 편향, 지각의 유사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 성차

[†] 교신저자 : 조영주, 한경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E-mail : yjcho@hknu.ac.kr

결혼만족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을 말한다(Hawkins, 1968; Norton, 1983).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개 결혼관계는 남성과 여성 쌍을 한 단위로 하며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김아영, 조영주, 2018; Gottman & Levenson, 2002). Bernard(1972)는 ‘모든 결혼에는 그의 결혼과 그녀의 결혼, 두 가지의 결혼이 존재하며 그의 결혼이... 그녀의 결혼보다 낫다고 주장하였다. 부부상담 실제에서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개입에서 성차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인이며(Gottman & Silver, 2002), 경험적 선행연구에서도 부부의 결혼만족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고 반복적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김향련, 고재홍, 2007; 박영화, 고재홍, 2005; Gager & Sanchez, 2003).

결혼만족에서의 성차와 관련한 연구는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부부 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되는데, 보다 정확한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부 쌍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Jackson, Miller, Oka, & Henry, 2014). 또한 부부 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결혼만족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이 지각한 결혼만족을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기보고로 인한 제한점을 가진다. 자기보고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보고나 관찰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의 삼각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Denzin, 1978), 이를 결혼만족 연구에 적용하면 자기보고 결혼만족에 더하여 배우자가 지각한 결혼만족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만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서 최근에 West와 Kenny(2011)

는 이자관계(dyadic relationship)에서 상대방의 특성을 지각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진실과 편향 모형(Truth and Bias Model)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형을 적용하여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대한 지각을 편향과 정확성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결혼만족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결혼만족은 부부의 정신건강 및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강혜숙, 김영희, 2012; Stack & Eshleman, 1998). 선행연구에서는 결혼만족이 높을수록 부부의 우울이 낮고(차근영, 김석선, 길민지, 2017; Prolux, 2007; Whisman, 2001), 행복과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Glenn & Weaver, 1981; Voss, Markiewicz, & Doyle, 1999). 부모의 결혼만족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결혼만족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의 질이 높으며(Cummings & Davies, 2002), 자녀의 언어,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윤혜옥, 최효식, 2016).

이와 같이 결혼만족이 개인과 가족 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인은 크게 개인 및 부부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신과 배우자의 심리적 변인 그리고 부부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서정선, 신희천, 2007). 개인 및 부부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자녀 수, 결혼기간 등이 연구되었고(김아영, 조영주, 2018; Belsky, 1990; Gottman & Levenson, 2002), 자신과 배우자의 심리적 변인은 애착, 가치관, 자아 존중감, 정서지능, 상위기분 등을 포함한다(박영화,

고재홍, 2005; 박운주, 김병석, 2013; Bradbury, Fincham, & Beach, 2000).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변인으로 의사소통방식, 부부 갈등해결방식 등이 연구되었다(김아영, 조영주, 2018; 박영화, 고재홍, 2005; Bradbury, et al., 2000).

이와 같이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는 대개 그 원인과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자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부간 결혼만족은 대체적으로 정적 관련을 보인다. 이는 부부가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정 분위기 등을 공유하며, 유사한 외부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인정, 2011; Kenny, 2006). 우리나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부부의 결혼만족 간의 상관은 .5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향련, 고재홍, 2007; 박영화, 고재홍, 2005). 이와 같이 부부의 결혼만족 간의 상관성이 높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는 운명 공동체로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기 다른 가치, 욕구 및 목표를 가지기 때문이다. 부부 간 차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희생을 하기도 하는데(조정문, 1995), 이 과정에서도 부부의 결혼만족도 간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 Gager와 Sanchez(2003)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이 매우 높은 남편과 결혼만족이 낮은 아내 쌍이 전체의 11%이고, 결혼만족이 매우 높은 아내와 결혼만족이 낮은 남편 쌍이 전체의 9.9%라고 보고되었다.

부부의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과 함께 부부의 결혼만족도 간의 차이도 살펴볼 수 있는데, 결혼만족도에서 부부간 차이는 성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결

혼만족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차를 역할 분담과 성역할 사회화 경험으로 설명한다(현경자, 김연수, 2002).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결혼 후 남성은 가족 부양의 역할을 맡고 여성은 가사일과 자녀양육의 역할을 맡는다(현경자, 김연수 2002). 이 때, 여성이 분담하는 역할은 대개 남성이 분담하는 역할에 비해서 보상 수준도 낮고 사회적 인식도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내의 결혼만족이 낮을 수 있다(현경자, 김연수 2002). 뿐만 아니라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여성이 경제적 기여를 하는 경우에도 남성의 수입을 주요 소득원으로 생각하고 여성의 수입은 부가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가사분담의 불평등과 성차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김수정, 김은지, 2007).

사회화 과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남성은 과업중심적으로 여성은 관계중심적으로 사회화된다. 남편의 경우는 대개 자신을 표현하고 애정적인 아내를 통하여 정서적, 관계적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충족되는 반면 아내의 정서적, 관계적 욕구는 상대적으로 덜 충족될 수 있다(현경자, 김연수, 2002; Thompson & Walker, 1989). 또한 아내에게 요구되는 관계 중심적인 성역할 태도는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확대 가족 내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까지 확장되어, 그들의 정서적 상황을 알아차리고 다루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Loscocco & Walzer, 2013). 가장 만족을 느끼는 상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상태라는 관점에서는(조정문, 1995; Cate, Lloyd, & Long, 1988; Michaels, Edwards, & Acock, 1984), 남편이 아내에 비해서 정서적 및 관계적 욕구 충족과 같은 이익이 크기 때문에 남편의 결혼만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의 차이는 일관적으로 나타나는데 남편의 결혼만족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기쁘다, 2018; 김향련, 고재홍, 2007; 박영화, 고재홍, 2005; 박운주, 김병석, 2013; 서미아, 2017; 서정선, 신희천, 2007; 윤기봉, 지연경, 2017; 이숙희, 고재홍, 2012; 이인정, 2015; 차근영 등, 2017).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Jackson 등(2014)은 결혼만족의 성차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메타분석에서 여성의 결혼만족이 남성의 결혼만족에 비해서 7% 낮기는 했지만, 상담을 받는 부부를 포함한 임상 연구대상자를 제외했을 때에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부부 쌍을 중심으로 남녀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은 여성이 결혼을 종결함으로써 결혼만족의 성차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남성에게 기대되는 가사 및 육아 부담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Jackson 등(2014)은 중국인, 일본인 및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의 결혼만족이 여성의 결혼만족에 비해서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아시아 국가의 집단주의적 문화와 유교문화와 관련 지을 수 있다(Triandis, 1995).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의 영향과 남성 중심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이 가족을 위해서 자신

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결혼만족이 남성의 결혼만족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측정방법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분석 단위로 하여(Spanier, 1976), 남편과 아내의 자기보고 결혼만족을 연구하였다. 결혼만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보고 결혼만족에 더하여 배우자가 지각한 상대방의 결혼만족을 고려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대한 지각은 남편이 아내의 결혼만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아내가 남편의 결혼만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말한다. 한 사람의 결혼만족을 자기보고와 배우자의 지각을 통한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는 자료 삼각화(data triangulation: Denzin, 1978)를 통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뿐만 아니라 결혼만족에서의 성차를 하나 이상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A-B관계에서 결혼만족의 차이는 A의 자기보고 결혼만족과 B의 자기보고 결혼만족 간의 차이에 더하여 A의 자기보고 결혼만족과 A가 지각한 B의 자기보고 결혼만족 간의 차이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 삼각화를 통하여 결혼만족의 복합성을 보다 면밀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Cohen & Manion, 1986).

또한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West와 Kenny(2011)가 제안한 진실과 편향 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에서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지각할 때 편향되어 지각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사람들은 파트너의 특성이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로 편향되게 지각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특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각하기도 하며, 정확하게 지각하기도 한다(Fletcher & Kerr, 2010; Murray, Holmes, Bellavia, Griffin, & Dolderman, 2002; West & Kenny, 2011).

지각의 편향(perceptual bias)은 지향성 편향(directional bias)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perceptual similarity bias)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향성 편향은 실제 보고에 비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Fletcher & Kerr, 2010; West & Kenny, 2011). 다시 말하면 지향성 편향은 A의 자기보고 특성과 B가 지각한 A의 특성 간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상대방의 특성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지향성 편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편향되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긍정편향을 통하여 관계에서 확신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Fletcher & Kerr, 2010). 한편, Fletcher와 Kerr(2010)는 메타분석에서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성의 지각에서는 부정편향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그 이유가 긍정편향으로 지각할 때에는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궁극적으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결혼만족도 두 사람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성으로 부정편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자신의 특성을 투사하여 상대방을 유사하게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Decuyper, Bolle, & Fruyt, 2012). 즉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A-B 관계에서 A의 자기보고 특성과 A가 지각한 B의 특성 간의 상관으로 측정될 수 있다. 파트너가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할 때, 파트너와 연결된 느낌과 파트너에게 이해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Murray et

al., 2002). 지향성 편향이나 지각의 정확성과는 달리, 이러한 지각의 유사성은 대체로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조영주, 2017; 조영주, 심은정, 2017; Priem, Solomin, & Steuber, 2009). 사회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성은 관계 지향적으로 사회화되므로 배우자나 배우자와의 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아영, 조영주, 2018; 조영주, 2017; Thomas & Fletcher, 2003). 또한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여성은 권력의 열세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생각, 감정 및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남성은 대개 권력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태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아영, 조영주, 2018; 조영주, 2017; Caughlin & Scott, 2010).

지각의 정확성(perceptual accuracy)은 실제에 근거한 지각을 말하며(Fletcher & Kerr, 2010), A-B 관계에서 A의 자기보고 특성과 B가 지각한 A의 특성 간의 상관으로 볼 수 있다. Fletcher와 Kerr(2010)는 메타연구에서 지각의 정확성은 대개 중간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¹⁾ 실제 자신의 특성과 파트너의 특성이 유사할 때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지각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반면, 실제 특성이 유사하지 않을 때에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지각의 정확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Kenny & Acitelli, 2001; West & Kenny, 2011). 결혼만족은 부부의 동일한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그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 높일 것으

1) 상관계수의 효과크기는 .10~.30은 낮은 수준, .30~.50은 중간 수준, .50 이상은 높은 수준으로 본 Cohen(1988)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지각의 정확성에서의 성차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각의 정확성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Fletcher와 Kerr (2010)는 친밀한 관계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동기나 지각 능력에서는 성차가 없다고 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여성이 타인과의 관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지각하기는 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자신을 덜 표현하기 때문에 지각의 정확성에서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조영주, 2017; Hall, 1984).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결혼만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자기보고 결혼만족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대한 지각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삼각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만족에서의 성차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지각할 때 긍정 혹은 부정 편향되게 지각하는지, 자신의 결혼만족을 투사하여 편향되게 지각하는지 또 정확하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고, 이 때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대인관계에서 지각의 편향과 정확성 연구를 결혼만족 지각에 확장시키고자 한다.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보고 결혼만족과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 간의 차이 및 배우자의 결혼만족 지각에서의 지향성 편향, 지각의 유사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 및 성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결혼만족의 성차: 남편의 결혼만족이 아내의 결혼만족보다 높을 것이다.

1-1. 남편의 자기보고 결혼만족이 아내의 자기보고 결혼만족보다 높을 것이다.

1-2. 남편의 자기보고 결혼만족이 남편이 보고한 아내의 결혼만족보다 높을 것이다.

1-3. 아내의 자기보고 결혼만족이 아내가 보고한 남편의 결혼만족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 2. 결혼만족 지각의 지향성 편향과 성차: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배우자의 자기보고에 비해서 더 낮게 지각할 것이다. 지향성 편향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3. 결혼만족 지각의 유사성 편향과 성차: 자신의 결혼만족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결혼만족이 높다고 지각할 것이다. 이러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아내에 비해서 남편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결혼만족 지각의 정확성과 성차: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높게 보고할수록 배우자의 결혼만족이 높다고 지각할 것이다. 지각의 정확성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절차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부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계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설문 자료는 임의표집 하였는데, 설문 조사자가²⁾ 자신이 속한 학교, 직장 및 커

2)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한 김아영께 감사드립니다.

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³⁾ 설문자료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집되었으며 지필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 두 가지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부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실시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에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지필 설문을 작성할 경우, 큰 봉투 안에 두 개의 설문지와 두 개의 작은 봉투를 포함하였고 부부가 각자 설문을 작성한 후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온라인 설문 링크를 보내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지필 설문과 온라인 설문 모두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한 코드 번호를 부여하여 이들을 매치하여 쌍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126쌍의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편의 나이는 평균 36.52세(표준편차=4.18)였고 아내의 나이는 평균 34.26세(표준편차=3.78)이었다. 결혼 기간은 평균 63.87개월(표준편차=43.02)이었고 자녀가 없는 부부는 25쌍(19.8%), 1명은 54쌍(42.9%), 2명은 43쌍(34.1%), 3명은 4쌍(3.2%)이었다. 최종 학력별로, 남편은 고졸이 10명(7.9%), 대졸 82명(65.1%), 대학원 이상이 34명(27.0%)이었고, 아내는 고졸이 12명(9.5%), 대졸이 97명(77.0%), 대학원 이상이 17명(13.5%)이었다. 직업별로, 남편은 무직이 2명(1.6%), 영업, 판매, 생산 및 서비스직이 12명(9.5%), 자영업이 8명(6.3%), 사무직이 67명(53.2%), 전문직이 37명(29.4%)이었다. 아내는 무직이 1명(0.8%), 전업주부가 39명(31%), 영업, 판매, 생산 및 서비스직이 6명

(4.8%), 자영업이 3명(2.4%), 사무직이 57명(45.2%), 전문직이 6명(15.9%)이었다. 아내가 보고한 월수입은 300만원 이하가 21명(16.7%), 300-500만원이 52명(41.3%), 500만원 이상이 53명(42.1%)였다.

측정도구

결혼만족도

결혼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Norton(1983)이 개발한 부부관계의 질 지표(Quality of Marriage Index)를 장춘미(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부관계의 질 지표는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좋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부부의 관계는 안정적이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다' 등을 포함한다. 응답자에게 우선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지시문을 제시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Likert식 7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귀하의 배우자의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라는 지시문과 함께 6 문항을 반복하여 제시하여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였다. 장춘미(2001)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남편은 .96이었고 아내는 .97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보고 결혼만족의 내적신뢰도는 .96이었고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의 내적신뢰도는 .97이었다.

분석방법

우선 기술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3) 전체 설문 자료 중 일부는 김아영, 조영주(2018)에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가설 1과 가설 2에서 제안한 자기보고 결혼만족 및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에서의 성차 및 지향성 편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결혼만족도 지각의 지향성 편향에서 성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편의 지향성 편향 값과 아내의 지향성 편향 값을 산출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3과 가설 4에서 제안한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의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적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Kenny, et al., 2006). 이 때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성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된 경로를 등가제한한 등가제한모형의 모형적합도(χ^2)를 살펴보았다.

결혼기간은 결혼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고(Gottman & Levenson, 2002), 결혼만족, 지각의 유사성 및 정확성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김향련, 고재홍, 2007; Fletcher & Kerr, 2010).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이 자기보고 결혼만족 및 지각된 배우자의 결

혼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기간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자녀 유무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지만(Bradbury, Fincham, & Beach, 2000), 본 연구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가 25쌍으로 집단 간 비교를 위한 표집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녀유무를 포함하지 않았다.

결 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 및 결혼기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의 범위가 .91에서 1.44(표준오차=.22), 첨도의 절대값의 범위는 .34에서 2.55(표준오차=.43)였다. 이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의 정상성 분포의 기준인 2이하의 왜도와 7이하의 첨도로 본 연구의 자료는 정상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는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기간은 남편과 아내의 자기보고 결혼만족 및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p > .05$). 결혼만족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남편의 결혼만족은 아내의 결혼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주요 변인 간의 상관

| | 1 | 2 | 3 | 4 | 5 | M | SD | 왜도 | 첨도 |
|---------------------|------|--------|--------|--------|---|-------|-------|-------|------|
| 1. 결혼기간 자기보고 | - | | | | | 63.87 | 43.02 | 1.35 | 2.17 |
| 2. 남편 결혼만족 | .00 | - | | | | 6.09 | .84 | -1.43 | 2.55 |
| 3. 아내 결혼만족 배우자지각 | -.10 | .62*** | - | | | 5.85 | 1.19 | -1.44 | 1.80 |
| 4. 남편이 지각_아내 결혼만족 | -.02 | .88*** | .56*** | - | | 5.98 | .93 | -1.14 | 1.34 |
| 5. 아내가 지각_남편 결혼만족 | -.08 | .65*** | .89*** | .60*** | - | 5.97 | .93 | -.91 | .34 |

주. N=126. *** $p < .001$.

표 2. 대응표본 t-test

| 구분 | 변인 | 변인 | M | S.E. | t |
|------------|---------------|-----------------|------|------|----------------|
| 자기 보고 | 남편 결혼만족 | - 아내 결혼만족 | .23 | .08 | 2.83** |
| 남편 보고 | 남편 결혼만족 | - 남편 지각_아내 결혼만족 | .11 | .04 | 2.68** |
| 아내 보고 | 아내 결혼만족 | - 아내 지각_남편 결혼만족 | -.12 | .05 | -2.14* |
| 지향성 편향(아내) | 아내 지각_남편 결혼만족 | - 남편 결혼만족 | -.12 | .07 | -1.84 (p=.068) |
| 지향성 편향(남편) | 남편 지각_아내 결혼만족 | - 아내 결혼만족 | .13 | .09 | 1.45 (p=.150) |
| 지향성 편향 성차 | 지향성 편향 (아내) | - 지향성 편향 (남편) | -.26 | .15 | -1.74 (p=.084) |

주. N=126. *p<.05, **p<.01.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62, p<.001$). 남편의 결혼만족은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결혼만족 및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결혼만족과 각각 높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88, p<.001; r=.65, p<.001$), 아내의 결혼만족도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결혼만족 및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결혼만족과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r=.56, p<.001; r=.89, p<.001$).

가설 1과 가설 2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부의 결혼만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자기보고 결혼만족과 배우자가 지각한 결혼만족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남편의 결혼만족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이=.23, $t=2.83, p<.01$). 남편은 자신의 결혼만족에 비해서 아내의 결혼만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차이=.11, $t=2.64, p<.01$), 아내는 자신의 결혼만족에 비해서 남편의 결혼만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이=-.12, $t=-2.14, p<.05$).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결혼만족이 아내의 결혼만족보다 높을 것이라고 본 가설 1이 지지되었

음을 의미한다. 한편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배우자의 자기보고에 비해 더 낮게 지각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이에 대한 아내의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평균차이=-.12, $t=-1.84, p=.068$),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이에 대한 남편의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이=.13, $t=1.45, p=.150$). 결혼만족도 지각에서의 지향성 편향에서의 성차는 근소한 차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이=-.26, $t=-1.74, p=.084$).

가설 3과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지각의 유사성 편향과 직접 지각의 정확성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투사하여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지각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유의하며(남편 지각: $\beta=.87, p<.001$; 아내 지각: $\beta=.80, p<.01$), 남편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아내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20.37, p<.001$). 즉 자신의 결혼만족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결혼만족이 높

표 3. 배우자 결혼만족의 지각에서 지각의 유사성 편향과 직접 지각의 정확성

| 효과/ 예측변인 | 준거변인 | B | S.E. | β | 등가제약모형 [†] χ^2 |
|------------|-----------------|-----|------|---------|---------------------------------|
| 지각의 유사성 편향 | | | | | |
| 남편 결혼만족 | → 남편 지각_아내 결혼만족 | .96 | .06 | .87*** | 20.37*** |
| 아내 결혼만족 | → 아내 지각_남편 결혼만족 | .62 | .04 | .80*** | |
| 직접 지각의 정확성 | | | | | |
| 남편 결혼만족 | → 아내 지각_남편 결혼만족 | .17 | .05 | .15** | 4.50* |
| 아내 결혼만족 | → 남편 지각_아내 결혼만족 | .02 | .04 | .02 | |
| 공변량/상관 | | | | | |
| 남편 결혼만족 | ↔ 아내 결혼만족 | .61 | .10 | .61 | |

주. N=126. * $p<.05$, ** $p<.01$, *** $p<.001$. † 지각의 유사성 편향 등가제약모형에서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 두 개의 경로를 등가제약 하였으며, 직접 지각의 정확성 등가제약모형에서는 직접 지각의 정확성 두 개의 경로를 등가제약 하였다.

다고 지각할 것이며 이러한 유사성 편향이 남편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결혼만족의 지각에서 전체 지각의 정확성은 단순상관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과 아내 모두 유의하였다(표 1). 한편 남편의 결혼만족에 대한 아내의 직접 지각의 정확성은 유의한 반면($\beta=.15, p<.01$), 아내의 결혼만족에 대한 남편의 직접 지각의 정확성은 유의하지 않았고($\beta=.02, p>.05$), 지각의 정확성에서의 성차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4.50, p<.05$). 직접 지각의 정확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배우자의 결혼만족도가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남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매개하여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49(.61*.80, sobel's $z=5.67, p<.001$)로 전체 정

확성의 75.4%(49/.65)였다.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53(.61*.87, sobel's $z=5.70, p<.001$)으로 전체 지각의 정확성의 94.6%(53/.56)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의 정확성과 관련된 가설 4가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만족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고,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지각할 때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때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설 1에서는 남편의 결혼만족이 아내의 결혼만족보다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 우선 가설 1-1에

서 가정하 바와 같이 남편의 자기보고 결혼만족은 아내의 자기보고 결혼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이는 우리나라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기쁘다, 2018; 김향련, 고재홍, 2007; 박영화, 고재홍, 2005; 박운주, 김병석, 2013; 서미아, 2017; 서정선, 신희천, 2007; 윤기봉, 지연경, 2017; 이숙희, 고재홍, 2012; 이인정, 2015; 차근영 등, 2017). 또한 아내에 비해 남편의 결혼만족이 높은 것은 중국인, 일본인 및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이지만 최근 서구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Jackson et al., 2014).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부부는 결혼만족의 관점에서 여전히 '그의 결혼이... 그녀의 결혼보다 낫다(Bernard, 1997)'고 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부부가 가족 부양, 자녀 양육 및 가사 일을 분담하지만, 자녀양육과 가사는 여전히 아내의 주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본 연구 결과와 연결 지을 수 있다. 또한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관계중심적인 아내로부터 남편은 정서적, 관계적 욕구를 상대적으로 더 충족하는 반면 아내는 대개 과업중심적인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관계적 욕구 충족도가 낮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 비해서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만족에서의 성차는 선행연구에서도 더러 연구되었는데 대부분 자기보고 자료를 통하여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삼각화 기법을 적용하여 자기보고 결혼만족에 더하여 배우자가 지각한 상대방의 결혼만족을 함께 살펴보았다. 가설 1-2에서는 남편의 자기보고 결혼만족이 남편이 보고한 아내의 결혼만족보다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가설 1-3에

서는 아내의 자기보고 결혼만족이 아내가 보고한 남편의 결혼만족보다 낮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두 가지 모두 지지되었다.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이 아내의 결혼만족보다 높다는 것, 즉 '두 가지 결혼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부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부부의 결혼생활은 남편도 '그의 결혼이... 그녀의 결혼보다 낫다'고 여기며, 아내도 '그의 결혼이... 그녀의 결혼보다 낫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Jackson 등(2014)은 서구에서는 결혼만족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안하였다. 하나는 가정 내에서의 남성의 역할분담 증가와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스트레스로 인한 남성의 결혼만족도 저하이며, 다른 하나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을 종결하는 여성의 증가로 인한 기혼 여성의 결혼만족도 증대이다. 이들의 제안을 우리나라 부부에 적용하면, 가족 부양, 자녀 양육, 및 가사 일의 분담에서의 불평등을 부부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남편의 가사나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가 서구에 비해서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아내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지만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서구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설 2에서는 배우자의 자기보고에 비해서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더 낮게 지각하는 부정 편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상호작용 변인에서는 지각의 지향성에서 부정편향을 보인다고 한 Fletcher와 Kerr(2010)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Fletcher와 Kerr(2010)는 친밀한 관계에서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성을 부정 편향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부정편향의 경향이 긍정편향으로 상쇄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미혼커플의 경우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성을 긍정편향 되게 지각함으로써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경향도 있음을 적용하면(조영주, 2017),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배우자의 관계만족을 긍정 편향되게 지각하는 경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잠정적인 것으로 추후연구에서 부정편향의 경로와 긍정편향의 경로가 보다 명료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가설 3에서는 자신의 결혼만족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결혼만족이 높다고 지각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지지되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 간의 높은 상관도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유사성 편향의 계수가 상관 계수보다 크다는 점은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단순상관계수에서도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결혼만족은 아내의 결혼만족보다 남편의 결혼만족과 높은 상관이 있었고,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결혼만족은 남편의 결혼만족보다 아내의 결혼만족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투사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투사가 사고, 감정, 대인관계, 기질, 가치, 관계 헌신, 애착 특성, 우울 등 다양한 영역 뿐 아니라(Lemay et al., 2007), 결혼만족에서도 나타남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지적 도식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준거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도 타인과 세상을 볼 것으로 기대하는데(Lemay, et al., 2007; Murray et al., 2002). 본 연

구 결과는 배우자의 결혼만족의 지각에서도 자기 자신의 결혼만족을 준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투사는 친밀한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동기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다(Lemay et al., 2007). 즉,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배우자의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지각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줄이며, 결혼만족도가 낮을 때에는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도 낮다고 지각함으로써 자신의 낮은 결혼만족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Lemay et al., 2007).

가설 3에서는 이에 더하여 결혼만족 지각에서의 유사성 편향은 아내에 비해서 남편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가설도 지지되었다.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남편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아내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게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조영주, 2017; Priem, et al., 2009). 관계 중심적으로 사회화 된 아내는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자신의 것과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반면 아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관계 중심적인 남편은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민감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자신의 도식을 사용하여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지각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혹은 갈등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오래 동안 생리적 각성 상태를 경험하고 갈등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Gottman & Levenson, 1988), 결혼 만족도를 유사하게 지각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도 있다.

가설 4에서는 결혼만족에서 지각의 정확성

이 유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배우자의 자기보고 결혼만족이 높을수록 상대방도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높게 지각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지각의 정확성은 남편과 아내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아내의 지각의 정확성이 남편의 지각의 정확성에 비해서 다소 높았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체 지각의 정확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의 정확성이 대개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Fletcher와 Kerr(2010)의 연구를 지지한다. 직접 지각의 정확성을 살펴보면 남편의 결혼만족을 지각할 때 아내의 직접 지각의 정확성은 유의하였으나 아내의 결혼만족을 지각할 때 남편의 직접 지각의 정확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아내는 자신의 결혼만족을 투사하여 자신의 결혼만족과 상관이 높은 남편의 결혼만족을 간접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의 결혼만족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반면 남편은 자신의 결혼만족을 투사하여 아내의 결혼만족을 간접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지만, 아내의 결혼만족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혼 만족의 직접 지각의 정확성의 성차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지각의 정확성이 높다고 한 Thomas와 Fletcher(2003)의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남성의 관계만족은 자기 자신의 행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여성의 관계만족은 파트너의 행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이미영, 권정혜, 2016; Cross & Madson, 1997). 관계만족 지각에서 지각의 유사성 편향과 관련하여 논의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 비해서 관계 중심으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배우자가 경험하

는 대로 알아차리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내는 대개 남편에 비해서 권력의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권력의 우위에 있는 남편의 상황, 사고 및 감정을 민감하게 지각하다고 보는 사회구조적 관점을 적용해서 결혼만족의 직접 지각의 정확성이 아내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 쌍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결혼만족에서의 성차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결혼만족의 선행연구에서는 남편의 결혼만족이 아내의 결혼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Jackson 등(2014)의 연구에서 보듯이 결혼만족에서의 성차는 독립적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했는지 부부 쌍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쌍 자료를 사용하여 결혼만족에서의 성차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 삼각화 기법을 사용하여 자기보고 결혼만족에 더하여 배우자가 지각한 결혼만족을 측정함으로써 자기보고로 인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혼만족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대개 남편 혹은 아내 각각의 자기보고 결혼만족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지각하는 결혼만족의 성차와 아내가 지각하는 결혼만족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결혼만족의 성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에서의 지각의 지향성 편향,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지각

의 정확성을 살펴봄으로써 지각의 편향과 정확성 연구를 부부의 결혼만족에도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각의 편향과 정확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성차는 일관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 성차를 검증함으로써 지각의 편향과 정확성의 성차를 보다 명료화 했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부부상담의 실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부부의 결혼만족의 차이와 관련된 결과는 배우자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부부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혼만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지각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므로 결혼만족이 낮은 사람은 배우자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결혼만족이 높은 배우자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결혼만족이 낮은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과 태도의 차이로 인하여 관계에 오해와 불신이 생기기도 하므로, 상담자는 부부가 자신의 입장과 의도를 명확하게 하도록 도움으로써 관계 갈등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기 자신의 결혼만족이 높으면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높을 것으로 지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였고, 이는 남편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결혼만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의 성차를 고려하면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대한 지각과 이해는 남편에게 더 필요할 수 있다. 상담자는 지각에서의 투사 및 자기중심성의 경향과 성별의 차이를 부부에게 교육하고, 배우자의 입장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상담에서 배우자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생각, 감

정, 욕구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이 주요한 과정인데(Gottman & Silver, 2002; Johnson, 2004), 이러한 과정은 결혼만족에 대한 이해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차는 결혼만족도의 직접 지각의 정확성에서도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를 상담 장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가 남편의 결혼만족을 지각할 때는 직접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한 반면 남편이 아내의 결혼만족을 지각할 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가 결혼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며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남편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상담자는 부부가 함께하는 상호작용이지만 각자가 다르게 지각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학문적 의의와 상담 실제에 대한 함의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의 제한점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자료 수집자를 중심으로 한 임의표집으로 이루어졌다. 커플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의표집을 더러 사용하는 하지만(김미정, 조영주, 2017; 박운주, 김병석, 2013),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는 대개 30대의 젊은 연령층,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 사무직과 전문직 직업의 비율이 높았고,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의 결혼만족이 낮은 경우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만족에서의 유의한 성차는 임상 연구대상자를 제외했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Jackson 등(2014)이 연구를 고려하면, 결혼만족이 낮은 부부를 포함했을 때에는 결혼만족의 성차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학력 및 직업군뿐만 아니라, 부부상담에 참여하는 부부를 포함하여 결혼만족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이도록 표집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부, 가사분담 정도, 수입, 자녀 요인 등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변인과 결혼만족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에 따른 표집이 집단 차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변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결혼만족은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를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만족도의 성차가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 성차가 큰 영역과 작은 영역 등을 확인함으로써 결혼 만족도의 성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부 상담이나 커플 상담에서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유의한 성차는 집단주의나 유교문화의 관점에서 논의하였고, 유의하지 않은 성차는 이혼율의 증가, 부부상

담 참여, 일-가정 균형의 중요성과 같은 시대 변화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들 간의 관련성에 관한 검증은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숙, 김영희 (2012). 부부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3(6), 2861-2880.
- 기쁘다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녀가치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31-52.
- 김수정,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교환 혹은 젠더 보상?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아영, 조영주 (2018).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4), 567-588.
- 김향련, 고재홍 (2007).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89-105.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운주, 김병석 (2013). 부부의 상위기분과 정서표현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상담학연구*, 14(5), 2945-2927.
- 서미아 (2017). 남편과 아내의 애착손상 및 정서조절력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 가족과 가족치료, 25(2), 327-345.
-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 윤기봉, 지연경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의 양육참여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지, 24(3), 133-153.
- 윤혜옥, 최효식 (2016). 부모의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유아 발달 간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APIM 모형의 적용. 유아교육연구, 36(3), 357-378.
- 이미영, 권정혜 (2016). 자기개방과 공감반응이 신혼부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4), 529-552.
- 이숙희, 고재홍 (2012). 부부의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도: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149-170.
- 이인정 (2015). 남편의 양육참여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6(1), 343-370.
-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비난 및 철회의 사소통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417-443.
- 조영주, 심은정 (2017). 남녀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179-202.
- 조정문 (1995). 결혼생활의 공정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3), 559-584.
- 차근영, 김석신, 길민지 (2017).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보건사회연구, 37(2), 126-149.
- 현경자, 김연수 (2002). 기혼남녀의 결혼만족이유에 대한 내용분석: 결혼만족 근원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사회복지학, 49(5), 225-263.
- Belsky, J. (1990). Children and marriage. In F. D. Fincham & T. N. Bradbury (Eds.), *The psychology of marriage* (pp. 172-200). New York: Guilford Press.
- Bernard, J. (1972). *The future of marriag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64-980.
- Cate, R. M., Lloyd, S. A., & Long, E. (1988). The role of rewards and firmness in developing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433-52.
- Caughlin, J. P., & Scott, A. M. (2010). Toward a communication theory of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inter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 W. Smith & S. R. Wilson (Eds.), *New direction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research* (pp. 180-200). Los Angeles, CA: Sage.
- Cohen, L.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 Cohen, L. & Manion, L. (1986).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London: Croom Helm.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Cummings, E. M., & Davies, P. T. (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1), 31-63.
- Decuyper, M., De Bolle, M., & De Fruyt, F. (2012). Personality similarity, perceptual accurac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19(1), 128-145.
- Denzin, N. (1978). *Sociological Methods: A Sourcebook*. NY: McGraw Hill.
- Fletcher, G. J. O., & Kerr, P. S. G. (2010). Through the eyes of love: Reality and illu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Bulletin*, 136(4), 627-658.
- Gager, C., & Sanchez, L. (2003). Two as one? Couples' perceptions of time spent together, marital quality, and the risk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Issues*, 24(1), 21-50.
- Glenn, N. D., & Weaver, C. N. (1981). The contribution of marital happiness to glob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161-168.
- Gottman, J. M., & Levenson, R. W. (1988). The social psychophysiology of marriage. In P. Noller & M. A.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pp. 182-200).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2). A two factor model for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Exploratory analyses using 14-year longitudinal data. *Family Process*, 41(1), 83-96.
- Gottman, J. M., & Silver, N. (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임주현 역). 서울: 문학사상. (원전은 1999에 출판)
- Hall, J. A. (1984). *Nonverbal sex differences: Communication accuracy and expressive styl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wkins, J. L. (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47-650.
- Jackson, J. B., Miller, R. B., Oka, M., & Henry, R. G. (2014).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 105-126
- Johnson, S. M. (2004).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marital therapy: Creating connections*. New York: Brunner/ Mazel.
- Kenny, D. A., & Acitelli, L. K.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3), 439-448.
- Lemay, E. P. Jr., Clark, S., & Feeney, B. C. (2007). Projection of responsiveness to needs and construction of satisfying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5), 834-853.
- Loscocco, K., & Walzer, S. (2013). Gender and the culture of heterosexual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5, 1-14.
- Michaels, J. W., Edwards, J. N., & Acock, A. C. (1984).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as

- a function of inequality, inequity and outcom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4), 347-57.
- Murray, S. L., Holmes, J. G., Bellavia, G., Griffin, D. W., & Dolderman, D. (2002). Kindred spirits? The benefits of egocentrism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563-581.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Priem, J. S., Solomon, D. H., & Steuber, K. R., (2009). Accuracy and bias in perceptions of emotionally supportive communication in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6(4), 531-552.
- Prolux, C. M. (2007). Marital quality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576-593.
- Stack, S., & Eshleman, J. R. (1998). Marital status and happiness: A 17-n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527-536.
- Thomas, G., & Fletcher, G. J. O. (2003). Mind-reading accuracy in intimate relationships: Assessing the roles of the relationship, the target, and the ju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6), 1079-1094.
- Thompson, L. & Walker, A. (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45-871.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Voss, K., Markiewicz, D., & Doyle, A. B. (1999). Friendship, marriage, and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1), 103-122.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est, T. V., & Kenny, D. A. (2011). The truth and bias model of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18(2), 357-378.
- Whisman, M. A. (2001).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dissatisfaction. In S. R. H. Beach (Ed.), *Marital and family processes in depression: A scientific foundation for clinical practice* (pp. 3-2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1차원고접수 : 2019. 01. 23.
심사통과접수 : 2019. 03. 20.
최종원고접수 : 2019. 03. 27.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s of Self-report Marital Satisfaction and Perceived Spouse's Marital Satisfaction

Young-ju Ch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n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husband's and wife's self-report and perceived spouse's relationship satisfac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126 married couples and were analyzed utilizing paired t-test, correlation analyses, and path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husband's self-report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wife's self-report marital satisfaction. Second, husband perceived his wife's marital satisfaction lower than his own, and wife perceived her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higher than her own. Third, the directional bias was not significant and the perception of spouse's marital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pouse's self-report marital satisfaction. Fourth, the perceptual similarity bias was significant for both husband and wife. Fifth, the total direct perceptual accuracy was significant for both husband and wife. Sixth, direct perceptual accuracy in wife's perceiving her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while direct perceptual accuracy in husband's perceiving his wife's marital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included.

Key words : marital satisfaction, directional bias, perceptual similarity bias, perceptual accuracy, gender difference